



최근 원화강세 원인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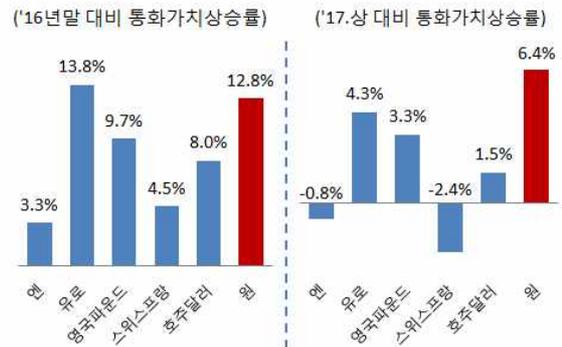
- (현황) 최근 원/달러 환율이 1,070선마저 붕괴되며 원화강세 움직임 확대
 - 환율은 두 나라 돈의 교환비율로 두 화폐의 가치변화가 반영된 결과이며, 최근 원/달러 환율급락은 달러약세와 원화강세에 모두 원인이 있음
 - (달러약세) 달러인덱스는 전년대비 9.9% 하락하며 다른 통화대비 약세를 지속
 - (원화강세) 원/달러 환율은 전년대비 12.8% 하락했으며, 특히 2017년 하반기는 다른 주요통화에 비해서도 강세가 두드러짐

< 원/달러환율과 달러인덱스 >



주 : 월말기준, 자료 : Bloomberg

< 주요화폐의 통화가치(달러대비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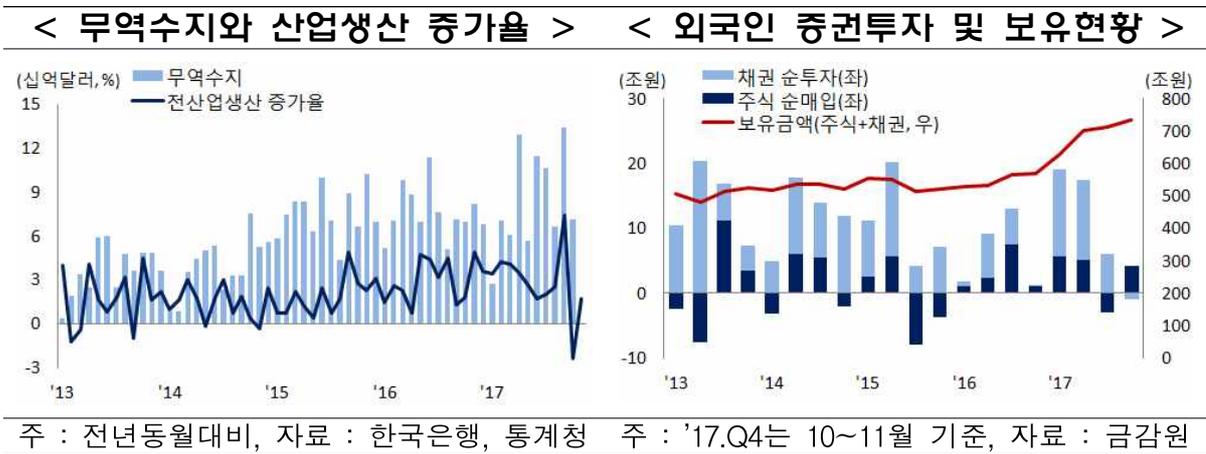


주 : '17년말기준

- (달러약세 원인) 미국의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디스카운트 등이 달러약세를 심화
 - 2017년은 ①미국 실물경기 개선 ②기준금리 인상(연 3회) ③주식시장 호황 등 수많은 달러강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달러약세가 지속된 한 해
 - ※ 미국 경제성장률(전기대비 연율, %) : 1.8('16.Q4) → 1.2('17.Q1) → 3.1(Q2) → 3.2(Q3)
 - ①글로벌 경기개선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②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불안 ③정부의 환율개입 의지 등이 달러약세의 주요원인으로 꼽힘
 - 러시아 스캔들에 따른 탄핵논의 등 트럼프의 정치적 리더십 약화가 달러약세 요인을 작용
 - 그간 터부시되던 정부의 환율개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가 하면, 차기 연준의장도 통화정책 정상화에 신중론을 제기한 제롬 파월을 지명함('17.11.2일)

□ (원화강세 원인) 실물경기 개선과 외국인 금융투자 확대로 원화가치가 상승

- 2017년은 글로벌 경기개선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되고, 대내외 수요증가로 산업생산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실물경기가 크게 개선
 - ※ 한국 경제성장률(전년동기대비, %) : 2.4('16.Q4) → 2.9('17.Q1) → 2.7(Q2) → **3.8(Q3)**
 - IMF와 OECD도 잇달아 우리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 2.7% → 3.0%, 2.6% → 3.2%
- 또한, 주식·채권 등 금융자산의 외국인 순매수도 누적 증가하였고, 특히 주식시장은 외국인 주식보유금액과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
 - 북핵위기가 고조된 8~9월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주식투자가 지속적으로 순유입
 - ※ 상장주식 외국인투자비중(%) : 31.2('14) → 29.1('15) → 31.2('16) → **33.2('17.11)**



□ 원화강세는 당분간 유지되겠지만, 하반기에는 달러도 상승압력이 강해지며 원/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할 전망

- (원화강세 요인) 소득주도 성장에 힘입은 소비증가와 글로벌 경기개선에 따른 수출증가 등으로 2018년에도 한국은 경기개선이 지속될 전망
 - (달러강세 요인) 트럼프의 주요공약이었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트럼프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회복되고, 하반기에 한-미간 금리차가 역전된다면 달러강세 압력은 점차 강해질 전망
 - 한-미 단기금리(90일 Libor)차는 2012년말 2.56%p, 2015년 1.05%p, 2017년 8월 0.03%p로 축소되다 11월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0.19%p까지 확대되었으나,
 - 2018년은 미기준금리 인상속도(연 2~3회 인상 전망)가 한국(연 1회 전망)보다 빨라 한-미간 금리역전은 불가피 * 현재 미기준금리 1.25~1.5%, 韓기준금리 1.5%
 - 다만, 일본은 양적완화를 지속하고 있고, 일본·유로존 등 주요국의 금리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금융시장에서 외화유출은 제한적
- (작성자 : 경제금융팀 과장 장우애 wooae78@ibk.co.kr / ☎02-729-6811)